

단 신

독거노인 마스크 전달
충남 공주시지회는 3월 13일 여성회 주관으로 회원 20여 명이 관내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예방의 사각에 놓인 관내 독거노인분들에게 천 마스크 6천장을 제작하여 전달했다.

마스크 제작 나눔 실시
충북 음성군지회는 3월 10~13일까지 음성군 여성회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수제 마스크 제작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방역대책본부 위문품 전달
충남 논산시지회 청년회는 3월 12일 논산시 방역대책본부를 찾아 피로회복제 등 1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김연안 논산시 보건소장에게 전달했다.

마스크 나눔 행사 실시
충북 충주시지회 목행동분회와 용탄동분회 회원 10명은 3월 11일 코로나19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를 제작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손 소독제 무료 나눔
충남 부여군지회는 3월 6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성회 회원들과 함께 부여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손 소독제 300개 무료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극복 현수막 게시
세종시지부 청년협의회는 3월 2일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응원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세종시 전 지역 교통요지에 게시했다.

시내 환경정화 활동 실시
충남 보령시지회는 2월 21일 여성회원 및 조직간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주요 구역을 돌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조기종식 위해 힘을 모읍시다”

코로나19 비상근무 대전시청 격려 방문

대전시지부(회장 박인국)는 지난 2월 대전지역 국민운동단체와 함께 대전 시내 종합병원과 각 구청 보건소를 격려 방문한데 이어, 3월 16일 박인국 회장과 조직 간부들이 대전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 중인 정해교 대전시 자치분권국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품을 전달했다.

박인국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전 시민을 대표해 대전시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위생과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 위해 방역물품 전달

| 충북 보은군지회 |

충북 보은군지회(회장 직무대행 강문수)는 3월 10일 보은군청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써달라며 110만원 상당의 손 소독제를 기증했다.

이날 기증식에서 강문수 회장 직무대행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내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손 소독제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닥친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는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이웃들의 위로와 응원이 현재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라며 “군민들의 응원에 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 봉사

| 충남 논산시지회 |

충남 논산시지회(회장 최병웅) 회원 20여 명은 지난 11일부터 논산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관내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현수막 게시

| 세종시지부 |

세종시지부(회장 최충신)는 2월 25일 3·1절 101주년을 맞이하여 세종시지부 12개 읍면동분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2020년은 일본 불매운동 정착의 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세종시지부는 “작년 경제침략을 야기하고도 어떠한 사과도 없는 일본 아베정부의 만행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어려운 이웃 지원을 위한 생필품 기증

| 충북 괴산군지회 |

충북 괴산군지회(회장 송석규)는 3월 13일 괴산군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연면 오가리마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생필품(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송석규 회장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연면 주민들을 위해 응원의 마음을 담아 후원물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확진 환자 완쾌 기원 현수막 게시

| 충남 서산시지회 |

충남 서산시지회(회장 최광식)는 서산시로 이송된 코로나19 확진환자들의 완쾌를 기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천안 확진자 4명과 지난 6일 대구 확진자 18명 등 총 22명이 이송되어 서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